한국 여 축구 러 꺾고 4강

남 축구는 우크라에 승부차기패
태권도 이틀 연속 '노 골드' 수모

한국 여자축구가 난적 러시아를 물리치고 제25회 베오그라드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4강에 진출했다.

한국 여자축구팀은 7일 새벽(한국시간) 베오그라드 FC죌레즈닉 스타디움에서 열린 4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러시아를 물리치고 준결승에 안착했다. 여자팀은 9일 프랑스와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툰다.

여자팀은 러시아와 전후반 90분을 득점없이 비긴 뒤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한국이 선축에 나선 가운데 첫 번째 키커인 골잡이 전가을(수원시설관리공단)이 침착하게 골대 안으로 공을 집어넣어 1-0으로 앞서갔다.

이어 나온 러시아 키커가 찬 공이 골문을 벗어나며 한국은 승기를 잡았고 이후 4명의 선수가 모두 골을 넣어 러시아를 5-3으로 꺾었다.

그러나 남자 축구는 우크라이나와 8강전에서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승부차기 끝에 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은 전반을 0-1로 뒤졌지만 후반 12분 박진수(고려대)가 상대 아크 정면 30m 지점에서 통쾌한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골 네트를 흔들어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남자팀은 이후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결국 우크라이나의 골문을 열지 못해 승부차기에 들어갔고, 두 번째 키커로 나선 박진수의 공이 우크라이나 골키퍼의 손에 걸리면서 분위기가 넘어가 결국 1-4로 무릎을 꿇었다.

한편 베오그라도 페어홀3에서 열린 태권도 경기에서 한국은 미들급과 밴텀급에 남녀 각각 2명이 출전했지만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만을 각각 수확하는데 그쳤다.

이틀 연속 '노 골드'의 쑥스러운 성적표를 안은 한국 태권도는 금메달 21개가 걸린 이번 대회에서 품새 종목 3개를 포함, 불과 7개 종목에서만 정상에 올라 세계 각국과 격차가 급속하게 줄고 있음을 보여줬다.

6일 오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페어홀2에서 열린 제25회 하계유니버시아드 펜싱 여자 단체 플뢰레 8강에서 전희숙(왼쪽)이 폴란드 선수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펜싱 플뢰레 여자 단체전에서는 한국 여자팀이 3,4위 결정전에서 프랑스를 37-30으로 꺾고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배구팀은 스웨덴과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2(25-20 25-14 20-25 23-25 15-6)로 신승했다. 배구팀은 3승2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까지 한국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로 중국(금8,은14,동9)을 근소한 차로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일본(금4,은2,동6)과 미국(금3,은3,동4)은 3,4위를 각각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강진서 클럽축구 '왕중왕' 가린다

18일부터 내달 4일까지 '대한민국 클럽축구 대제전'
유·초·중·고·대·여자부 등 전국 180개팀 참가 열전

강진에 전국의 클럽축구 동호인들이 몰려온다.

6일 강진군은 오는 18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클럽축구 왕중왕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2009 대한민국클럽축구 대제전(2009 KOREA Club Football Tournament)'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제전에는 유치부 12팀, 초등부 88팀, 중등부 10팀, 고등부 10팀, 대학부 48팀, 여자부 12팀 등 총 180개 팀 1만2천여명(선수 7천200명, 학부모 포함)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각각 운영되어 온 대학, 고등, 중등, 초등 등의 클럽 축구대항전이 강진에서 처음으로 한데 어우러져 진정한 승자를 가르는 대제전이다.

대학부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여자부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중·고등부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유치부·초등부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각 부별로 예선 조별리그와 본선 토너먼트를 거쳐 최종 승자를 가린다.

(주)스포츠리그가 주최하고 강진군이 주관하는 이번 '2009 대한민국클럽축구 대제전'은 강진종합운동장을 비롯한 7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총 340게임이 열린다.

강진군은 올해 개최한 축구, 사이클, 태권도, 야구 등 6개 전국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사전준비 및 다양한 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임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장별 인력지원반과 자원봉사반, 의료지원반, 교통통제 및 안내반, 숙박안내 전담반 등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연인원 417명의 대회 진행요원을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생봉사활동을 겸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이번 '2009 대한민국 클럽축구 대제전'을 통해 약 63억여 원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임경태 스포츠기획팀장은 "강진의 따뜻하고 넉넉한 인심을 듬뿍 선사해 선수들이 평소 갈고 닦은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흥군 정구팀 전국 제패

새재기정구대회 장년2부 단체전 우승
개인 복식 경기는 아쉽게 2·3위 그쳐

장흥군 정구팀이 전국을 재패해 정구를 군기로 삼았던 장흥정구의 옛 명성을 되찾았다.

지난 4일부터 2일간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열린 제19회 새재기 전국정구대회에 출전한 장흥군선수단은 장년2부(50세 이상)단체전에서 우승했다.

장년2부 단체전은 전국에서 17개 팀이 출전해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예선리그전을 거쳐 각 그룹마다 1·2위팀(8개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장흥팀은 예선리그전부터 결승전까지 3-0이라는 무패행진을 기록하며 우승, 전국에 장흥 정구의 막강 실력을 과시했다.

또 개인복식경기에서는 2개조가 나란히 준결승까지 진출했으나 김동순. 신연식조는 3위에 머물었고 김영대(장흥군청). 이기주(장흥교육청)조는 결승전에서 경북팀에게 3-4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평소에는 주말에만 건강삼아 연습해온 장흥 정구팀은 지난 2일 고흥군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노인생활체육대회에서도 2년 연속 우승하는 실적을 거둬 타 시군 선수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번대회에 선수로 함께 출전한 장흥 정구협회 김철두 회장은 "장흥에는 전용정구장이 없어 애로가 있다"며 "전용정구장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신인대회 개최 등 후진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亞청소년대회 한국 축구 北 꺾고 金

남북대결로 펼쳐진 제1회 아시아청소년대회 축구 결승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은 6일 싱가포르 잘란 베사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축구 결승에서 북한에 2-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6월 30일 예선 2차전에서도 북한에 3-0으로 이겼던 한국은 전반 21분 김선빈(14·문원중)의 선제골과 후반 5분 김영규(14·원삼중)의 추가골로 완승을 거뒀다.

한국은 볼링 여자 마스터스 종목에서도 심의진(17·일산동고)이 금메달 1개를 보탰다. 대회 최종일 수영과 볼링, 요트, 탁구 등에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를 추가한 한국은 합계 금 20, 은 17, 동메달 17개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금 25, 은 16, 동메달 11개를 따낸 중국에 이어 종합 2위에 올랐지만 총 메달 숫자에서는 중국(52개)보다 많은 54개를 수확했다. 북한은 금 1, 은 4, 동메달 4개로 종합 10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단은 7일 폐막식을 마친 뒤 바로 귀국길에 오른다. /연합뉴스

김영광·기성용 '전남체육인재육성기금' 각각 1천만원

전남 출신 프로축구 스타 기성용(20·FC서울)과 김영광(26·울산 현대)이 전남체육인재육성 사업에 동참했다.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기성용과 김영광이 최근 전남체육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각각 1천만원씩을 쾌척, 고향사랑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기성용과 김영광은 "전남체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체육인들이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좋아하는 운동을 포기하는 후배들이 없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광〉 〈기성용〉

도체육회는 스포츠 스타들의 동참으로 장학기금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스포츠중계

8일(수)

▲회장기 전국대학야구대회 준결승·결승전 (10 : 50·SBS스포츠)

▲대붕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성남고 : 충훈고〉(12 : 50·Xports)

▲일본 프로야구 〈요코하마 : 요미우리〉(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 〈삼성 : 롯데〉(18 : 30·MBCESPN), 〈LG : KIA〉(18 : 10·KBSN SPORTS), 〈히어로즈 : 한화〉(18 : 20·X-ports), 〈SK : 두산〉(18 : 20·ETV)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최고급관
2관	킹콩을 들다 (전체)
3관	킹콩을 들다 (전체)
4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5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6관	여고괴담5:동반자살 (15세) /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7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8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9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12세)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향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2관	마더(18세)/터미네이터(15세)
3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4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5관	킹콩을 들다 (전체)
6관	킹콩을 들다 (전체)
7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8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전체)/여고괴담5(15세)
9관	펠햄123(15세)/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12세)
10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상무점] 평일 멤버쉽 2000원 할인! 중복할인 가능!! 1588-7941
[상무점] 매일 팝콘 무료증정!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inema.co.kr/ 1588-9120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미스포렉스 ☎ 267-7777

1관	여고괴담5:동반자살 (15세)
2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3관	터미네이터:미래전쟁의 시작 (15세)
4관	펠햄123 (15세)
5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6관	마더 (18세)
7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8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9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10관	킹콩을 들다 (전체)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동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볼링장 262-09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킹콩을 들다 (전체)
2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전체)/여고괴담5(15세)/마더(18세)
3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4관	터미네이터(15세)/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12세)
5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6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7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사우나(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2관	트랜스포머:-패자의역습 (12세)
3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4관	킹콩을 들다 (전체)
5관	터미네이터(15세)/박물관이 살아있다2(전체)
6관	여고괴담5:동반자살 (15세

• 무료주차 3시간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